



석탄산업의 근대화를 이끈 하시마 섬(통칭 '군함도')

일본 근대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나가사키

이곳에서부터 근대화된 기술이 확산되었다 해군전습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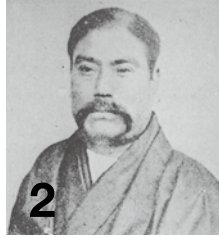
1855년, 에도 막부는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지원을 얻어 나가사키 해군전습소를 설립합니다. 해군전습소에서는 군함 조작기술뿐만 아니라 물리학과 천문학, 서양학과 같은 학문도 가르쳤습니다. 막부와 각 번의 명을 받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나가사키로 모여 들었습니다.

나가사키항은 '조선기술 일본'의 큰 무대로

개항과 함께 대형 선박이 증가하게 되자 배의 건조 및 보수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의 항구에 나가사키 제철소를 설립하였고 글로버는 주판 모양의 선박수리소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사키의 조선기술 역사는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이같은 시설들은 메이지 정부의 주도 아래 국영 시설이 되지만, 그 후 미쓰비시가 사들여 조선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면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유산의 보고 나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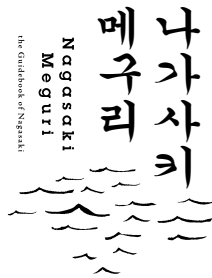
나가사키의 조선업과 함께 나가사키의 거리도 급속하게 발전하였습니다. 나가사키의 거리에는 조선업 이외에도 일본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산업유산이 지금도 다수 남아 있어 당시의 비약적인 발전의 역사를 오늘날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도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일본 중공업의 급속한 산업화를 말해 주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 산업'은 2015년 7월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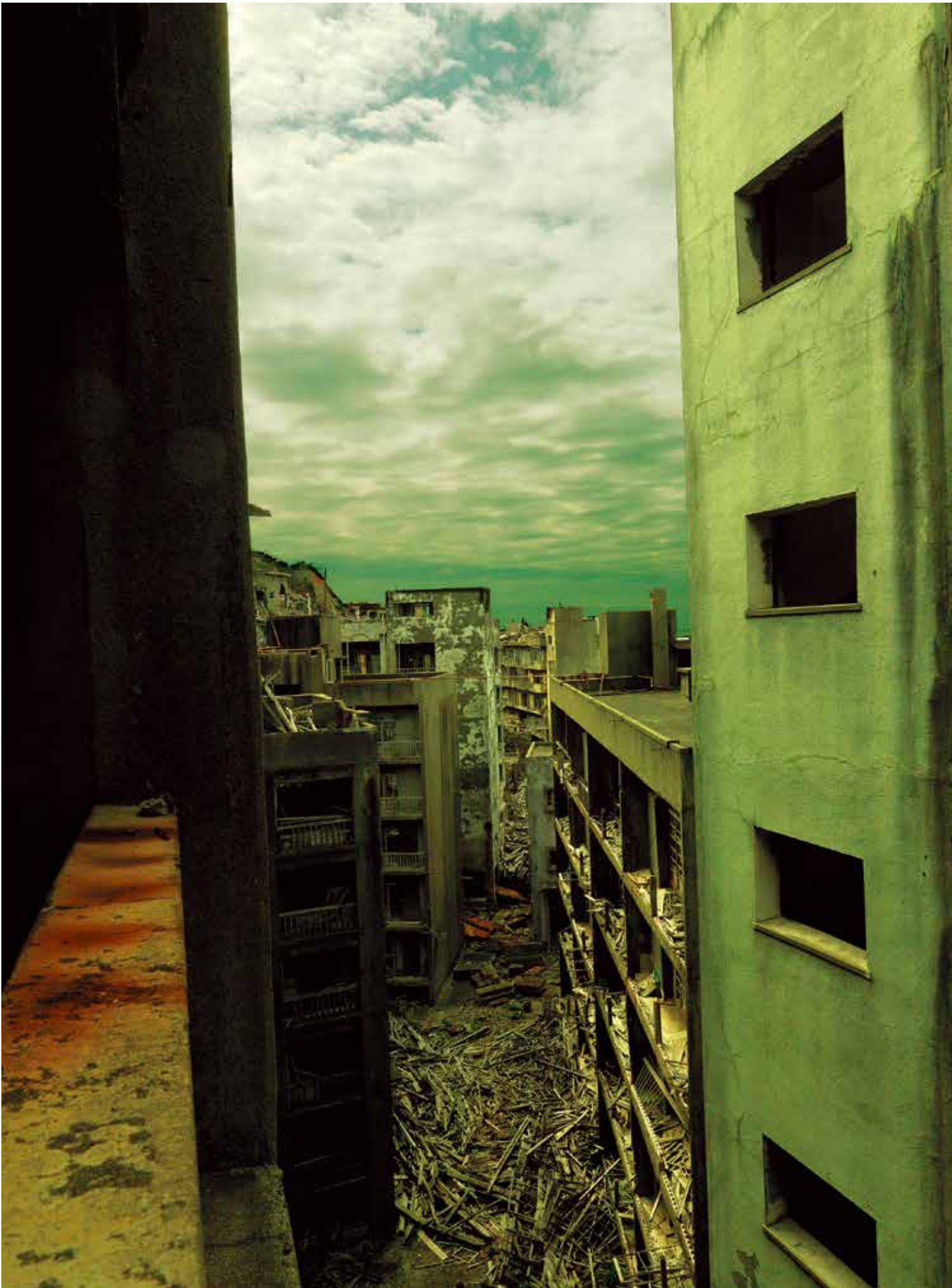


1. 나가사키 해군전습소 그림(사가현립 사가성 혼마루 역사관 소장)/가쓰 가이슈를 비롯하여 각 번에서 선발된 우수한 청년 약 120명이 나가사키의 해군전습소에서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였습니다.
2. 이와사키 야타로(국립 국회도서관 소장)/1873년에 미쓰비시상회를 설립, 조선 사업과 석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미쓰비시 그룹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History of Nagasaki ③

Modernization





하시마섬의 아파트 밀집지역/견학 시설 구역이 아니므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묵묵하게 오늘날에 전하는 군함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17.5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하시마 섬. 그 모습이 마치 바다로 향하는 군함처럼 보인다고 해서 통칭 '군함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접한 다카시마 섬과 함께 해서 탄광의 섬으로 번창하여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해 왔습니다. 1960년 섬의 인구밀도는 당시의 도쿄를 크게 웃돌아 섬에는 아파트 이외에도 영화관과 이발소, 학교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매우 활기가 넘치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폐광으로 주민들이 모두 섬을 떠나버려, 아무도 살지 않게 된 지금은 당시의 번영과 시대의 변화를 오늘날에 전하는 건물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상륙과 견학이 일부 가능해져 군함도 상륙 투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History of Nagasaki ④

Gunkanjima



세계문화유산

메이지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 제철·제강, 조선, 석탄 산업 —



●고스게 선박 수리소 유적

글로벌 등이 건설한 일본 최초의 서양식 선박 수리소. 배를 인양하기 위한 선박 지지대가 주판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통칭 주판 도크라고 합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제3도크

1905년에 건설되어 많은 선박을 수리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확장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 귀중한 자산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1 목형장

주물용 목형 제작소에 건설된 벽돌 양식의 건물. 현재는 미쓰비시 사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기계인 '수직형 형삭기' 등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2자이언트 कै말레버 크레인

공장 설비의 전기화에 따라 일본에서 최초로 건설된 영국계 전동 크레인. 리프팅 능력은 150t으로 1909년에 설치된 이래 약100년이 경과한 지금도 현장에서 가동 중.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2센쇼카쿠

나가사키 조선소의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 이층 양옥. 군함 '지요다'의 함장인 '히가시후시미노미야 요리히토 친왕'이 숙박했을 당시 '경치가 수려한 곳에 자리 잡다'라는 의미에서 센쇼카쿠로 명명.



●다카시마 탄광

글로벌이 개발한 다카시마 섬의 훗케이제이 갯도. 일본 최초로 근대적인 채탄법을 도입한 수직 갯도로 일본 탄광의 근대화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시마 탄광(군함도)

탄광섬으로 개발되어 1890년부터 미쓰비시의 소유로 본격적인 채탄을 시작. 채탄 사업의 발전으로 섬의 이용 구역은 점차 확장되어 전성기에는 5,000명 이상이 거주하였습니다.



●구 글로벌 주택

석탄과 조선 등, 당시 일본의 주요 산업의 근대화에 공헌한 상인 토머스 글로벌의 활동 거점. 1863년에 세워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서양식 건축.

기도의 도시 나가사키

16세기 천주교가 일본에 전래된 이래,
17세기부터 2세기가 넘도록 세계에서
유례없는 오랜 금교 정책 아래 나가사키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나가며,
독자적인 신앙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나가사키 곳곳에는 수많은 천주교
관련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들을 대표하는 12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은
나가사키 지방에서 잠복 크리스천이
만들어 낸, 유례가 드문 문화적 전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나가사키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이
만들어낸 유례가
드문 문화적 전통**

**신도 발견의
기적으로부터 150년**

사진 하단● 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금교기에 이주해 온 잠복
크리스천은 겉으로는 해상 교통의 신을
모시는 오키노코지마 신사의 신도로
가장하여, 재래 종교와 공존하며
독자적인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1

천주교의 전래와 번영

나가사키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550년의 일입니다. 나가사키현의 히라도에서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포교를 시작한 것이 효시입니다. 그 후 점차 무역의 거점이 바뀌면서 포교의 거점도 1562년에 개항된 요코세우라(현재의 사이카이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의 영주 오무라 스미타다 공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연구하여 세례를 받고 일본 최초의 크리스찬 다이묘가 되었습니다. 그 후 포교의 거점이 나가사키로 옮겨와 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일본의 작은 로마'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번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마바라 반도의 아리마에서는 히노에성의 마을에 신학교인 세미나리오와 콜레지오가 세워져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천주교 교육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사진 위 ● 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상 (고베시립 박물관 소장)
 사진 아래 ● '텐쇼 소년사절단'을 보드한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의 신문(교토대학 부속 도서관 소장)/4명의 소년들도 아리마의 세미나리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582년 나가사키항에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2

천주교 박해와 해금령

1596년 도사 지방에 표착한 스페인 선박 소속의 항해사가 '스페인인 침략을 위해 선교사를 파견한다'라고 발언. 이에 격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교토와 오사카의 선교사와 천주교인을 나가사키에서 처형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교토에서 체포된 24명의 신자와 도중에 더해진 2명의 신자는 혹독한 추위 속에 약 한 달동안 걸어서 나가사키에 도착. 26명 전원이 니시자카노오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더욱이 1614년에는 전국에 '금교령'을 선포. 박해는 날로 심해져 나가사키의 성당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시마바라와 아마쿠사의 영주민이 결속하여 봉기한 '시마바라·아마쿠사의 난'에서는 88일간의 농성 끝에 약 2만 수천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진 위 ● 일본 26성인 기념비(나가사키시/12세 소년을 포함한 26명이 나가사키의 니시자카노오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사진 아래 ● 하라 성터(미나미시마바라시)/막부군 12만명에게 포위된 하라성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발굴 조사에서는 무수한 인골과 함께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메달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3

은둔 천주교인의 신앙 계승

해금령에 의해 선교사의 입국도 단절되고 1644년에는 마지막 신부가 순교하게 됩니다. 가혹한 박해 아래 교회는 모두 파괴되고 천주교인들은 불교 신자 행세를 하면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감시의 눈을 피해 산간 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 숨어 살게 되는데, 경사가 가파르고 배후에 바다가 인접한 소토메 지역의 사람들은 생활이 힘들어지자 점차 신천지를 찾아 바다 건너 고토 열도 등의 외딴섬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순교한 히라도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독자적인 신앙 조직을 만들어 '오라티오'라는 말을 되뇌이고 기도를 드리며 신앙심을 지켜왔습니다.



● 눈의 산타마리아(일본 26성인 기념관 소장)/소토메 지방에서 계승되었던 성화상

4

세계 종교사의 기적, 신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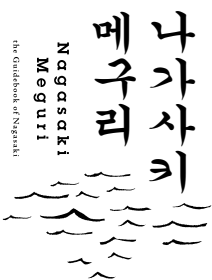
해금령은 1853년의 흑선 내항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일본에 체류하던 외국인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우라 천주당의 프티장 신부는 일본에 천주교인의 후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교회 정면에 한자로 '天主堂'이라고 써 붙였습니다. 1865년 3월 17일 정오를 조금 지났을 무렵, 우라카미에 사는 남년 십수명이 오우라 천주당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바다 건너 고토 열도 등의 외딴섬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모진 박해를 견뎌내고 2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온 천주교인들의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도 발견의 에피소드입니다. 당시의 유령을 크게 놀라게한 이 사건은 세계 종교사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 신도 발견의 부조/오우라 천주당 부지 내에 있는 부조에는 프티장 신부와 우라카미무라의 신도들의 첫 만남이 새겨져 있습니다.
 ● 금교령이 해제된 후 천주교로 복귀한 취락에는 잇달아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Christian history of Nagasaki ①

Place of Prayer





●기적의 순간을 지켜본 오우라 천주당의 마리아상. 우라카미의 은둔 천주교인들은 250년 동안 숨어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오다가 이 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Christian history of Nagasaki

Hidden Christian Sites in the Nagasaki Region



나가사키의 은밀한 신앙의 증거

17세기부터 2세기에 걸쳐 이어진 천주교, 금교 정책 아래 잠복 크리스천은 스스로 신앙을 계승해 나가며, 불교, 신도와 같은 재래 종교를 가장한 고유의 신앙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들입니다.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
「12가지 구성 자산」



12. 오우라 천주당[나가사키시]

●1865년 창건, 프랑스인 선교사 프티장의 지휘 하에 외국인 거류지에 세워진 오우라 천주당. 1953년에 국보로 지정된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 히라 성터[미나미시마바라시]



2.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가스가 취락과 야스만다케산)[히라도시]



3. 히라도의 성지와 취락(나카에노시마 섬)[히라도시]



4. 아마쿠사의 사키스 취락[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



5. 소토메의 시스 취락[나가사키시]



6. 소토메의 오노 취락[나가사키시]



7. 구로시마 섬의 취락[사세보시]



8. 노자키지마 섬의 취락터[오지카쵸]



9. 가시라카지마 섬의 취락[신카미고토쵸]



10. 히사카지마 섬의 취락[고토시]



11. 나루지마 섬의 에가미 취락[고토시]